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 6.89월 평가원, EBS 연계교재 완벽 반영, 2019 수능 대비 | 현자의 돌 시리즈 (2018년) 🔍

무료배송 **초독권** **이**

임수민 (지은이) | 메가스터디교육 | 2018-09-20

공유 URL

모의고사
2019학년도 수능 대비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참고서 사은품! 무민 북엔드, 신발 파우치 (3만원 이상부터)]

정가 : 13,000원
판매가 : **11,700원** (10%, 1,300원 할인) | 무이자 할부 ?
마일리지 : 650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점 ?
↳ 국내도서 외 상품 포함 구매에 한함

세액절감액 : 53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
추가혜택 : 카드/간편결제 할인 ▶

이 책의 전자책 :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 [출간알림 신청](#)

반양장본 | 26쪽 | 300*410mm | 70g | ISBN : 9791188449323

배송료 :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
수량예상일 :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
88.1% 최근 1주 확률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별**)

주문수량 : 1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택하기](#)
[보관함 담기](#)

사라진 소망차
오네스피,
엔딩왕립추천
마르틴 베코 시리즈 출간
#1

★★★★★ **10.0**

- * 고등학교참고서 주간 4위
- * 고등학교참고서 top100 2주
- * Sales Point : **12,740** ?

- * 읽고 싶어요 (0명)
- * 읽고 있어요 (0명)
- * 읽었어요 (49명)
- * 100자평 (3편) [+](#)
- * 리뷰 (46편) [+](#)

[이 책 구매요?](#)

[알라딘에 팔기](#) [회원에게 팔기](#)

[종교 등록 알림 신청](#)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중)

2. 본 자료는 '수능&평가원 기출 中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론' 모음 자료입니다.

3. 학습법:

-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
-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EBS)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편집 및 수정된 선지,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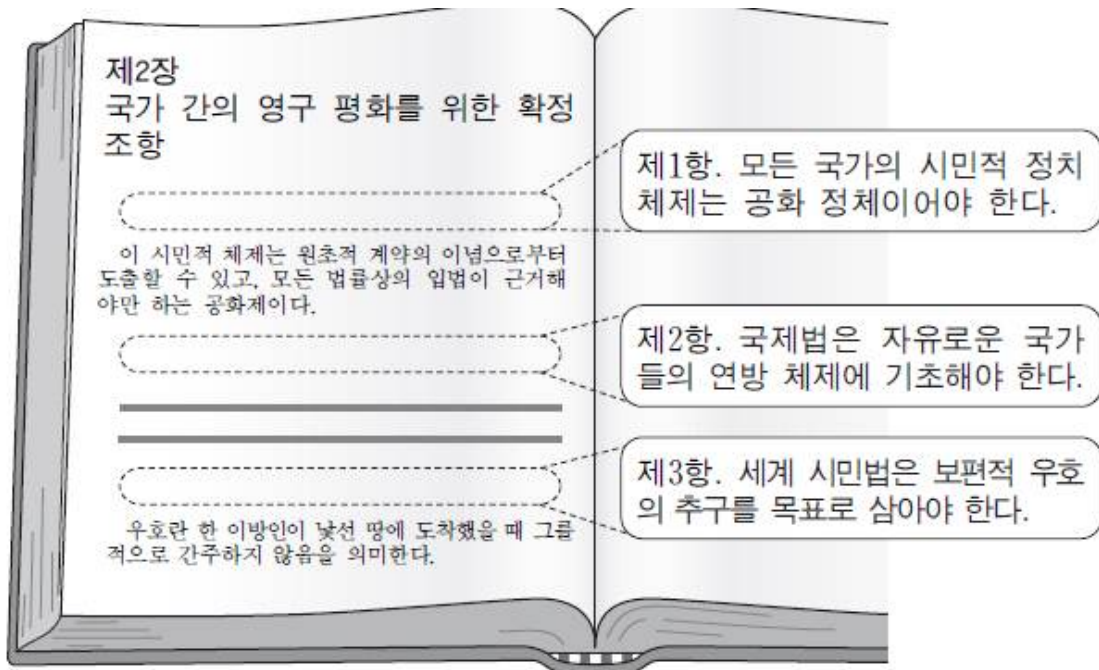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 그림 (나)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가)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6.6번)

(가)

지구 상에는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일까?

(나)



- 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인 세계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 ③ 강대국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정립해야 한다.
- ④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법을 폐지하고 자연법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권력을 폐지해야 한다.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제 관계 이론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5.11.18.번)

전쟁을 말하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도 무지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심이 들어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는 전쟁을 통한 이익이 전쟁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전쟁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 ① 강제력을 가진 세계 정부 수립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조한다.
- ②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강조한다.
- ③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정책이 분쟁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 ④ 전쟁을 도덕의 문제로 간주하여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다.
- 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이해 부족에서 전쟁이 비롯됨을 강조한다.

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2016.9.18.번)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6.11.17.번)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 ①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 ②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⑤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6.18.번)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6. 다음 현대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17.9.7.번)

A국에 대한 무장 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A국의 대외적 위협은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로 제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한 이상, A국과의 전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A국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수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가?
- ② 무조건적, 무제한적 전쟁은 도덕적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 ③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되어야 하는가?
- ④ 자결주의에 입각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 ⑤ 개전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 중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11.14.번)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正当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 ① 무력은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正当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② 개별 국가의 폭정은 전쟁 선포의正当한 명분이 될 수 없다.
- ③ 공동선과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도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 ④ 방어 이외에 어떠한 선제공격도 도덕적正当성을 갖지 못한다.
- 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살상 행위가正当화되는 것은 아니다.

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8.6.17.번)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9.15.번)

갑: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이다. 이러한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

을: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개전(開戰)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그 수행 과정과 전후 처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 ① 갑: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은 정당하다.
- ② 갑: 모든 전쟁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 ③ 을: 전쟁 개시 이전에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 ④ 을: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
- ⑤ 갑, 을: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어떠한 전쟁도 정의롭지 않다.

1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8.11.7번)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저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은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 판단의 근거는 효용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도덕 판단의 영역은 개시, 수행, 종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때는 전쟁 개시의 영역이 전쟁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합니다. 전쟁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명분입니다.

- ①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사회 전체의 효용에서 찾아야 한다.
- ③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전쟁 수행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11.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6.18.번)

갑: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을: 전쟁 종식만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 ① 갑 :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 ③ 을 :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④ 을 :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
- ⑤ 갑, 을 :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9.18.)

갑 : 어떤 국가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 정의로운 전쟁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

을 :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다.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① 갑 :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갑 : 인권 침해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
- ③ 을 : 평화 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다.
- ④ 을 : 영원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 을 : 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답:

②③②①③

③⑤③④⑤

④②